

<마네킹>

한 줄 시놉 : 모두가 사물과 연애를 하는 세상 속에서 홀로 사람과의 연애가 옳다고 생각하는 태민이 사회의 시선과 친구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람과 제일 비슷한 마네킹을 선택한다.

작품의도 : 다른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 그런 사회의 시선 때문에 획일화되며 개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친구들 모임으로 향하는 태민. 길거리 사람들은 식물, 기타 등과 연애를 하고있다. 혼자 걷는 태민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태민은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채고 후드티의 모자를 눌러쓰며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식당에 도착한 태민. 친구들은 태민을 반긴다. 친구들 역시 옆에 사물 애인을 두고있다. 말도 못하는 사물들에게 애인인 것 마냥 다정하게 굴고 애정행각을 한다. 그리고 혼자인 태민을 바라보고는 넌 왜 혼자라며 묻는다. 말도 못하는 사물이랑 연애를 어떻게 하나며 이상하다는 태민. 친구들은 그런 태민에게 요즘 누가 사람이랑 연애를 하나며 비웃는다. 사물이랑도 충분히 연애가 가능하다며 보여주는 친구들. 사물에는 대충 붙여진 가짜 눈코입이 붙어있고, 핸드폰 인공지능 기능으로 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눈다. 그런 친구들과 어딘가 동떨어져보이는 태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술을 마신다.

태민은 술에 잔뜩 취한 채 거리로 나온다. 비틀거리며 나무에 토하는데, 자기 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태민을 밀치는 한 여성. 태민은 헛웃음을 치며 대충 사과하고 길을 걷는다. 술에 취해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태민. 그 때 자동차 소리에 깜짝놀라 피하다가 넘어진다. 그대로 발라당 누운 태민. 태민의 눈 앞에 옷가게 앞에 서 있는 여성 마네킹이 보인다. 태민은 눈을 껌벅이며 마네킹을 바라보다 일어난다.

마네킹을 요리조리 만져보는 태민. 자신의 주머니에서 색 있는 립밤을 꺼내 마네킹의 입술에 바른다. 매혹적으로 보이는 마네킹의 얼굴. 태민은 닫혀있는 가게문을 살피고 주변 눈치를 보고는 마네킹을 끌고 집으로 향한다.